

## 요약

전 세계적으로 초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, 이로 인한 건강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관련 규제 변화 및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산업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함. 초가공식품 소비 확대는 만성질환 유병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건강·생명 보험 청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. 또한, 제조·유통업체의 법적 책임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함

- 전 세계적으로 초가공식품(Ultra-Processed Food; UPFs)<sup>1)</sup>의 건강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와 관련 규제 변화는 보험산업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
  - 전 세계적으로 초가공식품 소비<sup>2)</sup>가 지속되는 가운데, 청년층과 중·저소득국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짐
    - 미국에서는 2021~2023년 기간에 평균 칼로리 섭취 중에서 초가공식품의 비중이 55.0%였으며, 청소년(만 1~18세)층은 61.9%로, 성인(53.0%)보다 비중이 더 높았음<sup>3)</sup>
    - 멕시코 가계 조사에 따르면, 초가공식품 소비 비중은 1984년 10.5%에서 2016년 23.1%로 약 2배 이상 증가함<sup>4)</sup>
  - 초가공식품과 관련한 건강유해성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, 최근 미국·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
    -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식품첨가물 4종의 사용을 금지했고, 뉴욕 등 다수 주에서도 식품첨가물 사용의 추가 금지안을 논의 중<sup>5)</sup>이며, WHO도 초가공식품 식단의 장기적 위험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국가별 저감 정책의 마련을 권고함
- 초가공식품 소비 증가가 만성질환 발병과 사망률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장기적으로 생명·건강보험금 청구 빈도와 지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  -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, 초가공식품의 섭취는 장내 미생물 변화나 염증 증가 등 생리적 경로를 통해 만성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, 과다 섭취는 대사질환·심혈관질환 및 특정 암 발병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  - 특히, 2024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15% 높고, 심혈관·호흡기·대사질환 및 특정 암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<sup>6)</sup>

1) UPFs는 ① 고열량·고염·고당 및 낮은 식이섬유·영양소·비타민 함량, ② 가공 과정에서의 물리·화학적 변화, ③ 다양한 식품 첨가물, ④ 포장재로부터의 잠재적 오염물, ⑤ 식품 형태·질감·맛을 설계하여 과소비를 유도하는 '중독성 강화' 등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을 지님

2) UPF 소비는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얻은 총 에너지 대비 UPF가 제공하는 에너지의 비율(%) 또는 전체 식품 섭취량 대비 UPF 섭취량의 비율(%)로 표현됨

3) CDC(2025. 8.), "Ultra-processed Food Consumption in Youth and Adults: United States, August 2021–August 2023"

4) Jee-Seon Shim(2025. 1.), "Ultra-Processed Food Consumption and Obesity: A Narrative Review of Their Association and Potential Mechanisms"

5) The New York Times(2023. 4. 13.), "California and New York Could Ban 5 Food Additives Linked to Health Concerns"

6) Lane, M. et al.(2024. 2. 28.), "Ultra-processed Food Exposure and Adverse Health Outcomes: Umbrella Review of Epidemiological Meta-analyses", *BMJ*, vol. 384

- 또 다른 연구에서도 초가공식품 섭취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 대비 심혈관질환 위험 17%, 동맥질환 위험이 23%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<sup>7)</sup>, 일부 연구에서는 합성 식용 색소 섭취가 아동의 주의력 저하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<sup>8)</sup>

• 각종 연구에서의 초가공식품 섭취의 위험성은 생명·건강보험금 청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, 실제로 심혈관질환은 건강보험 고액 청구의 주요 원인 질환 중 하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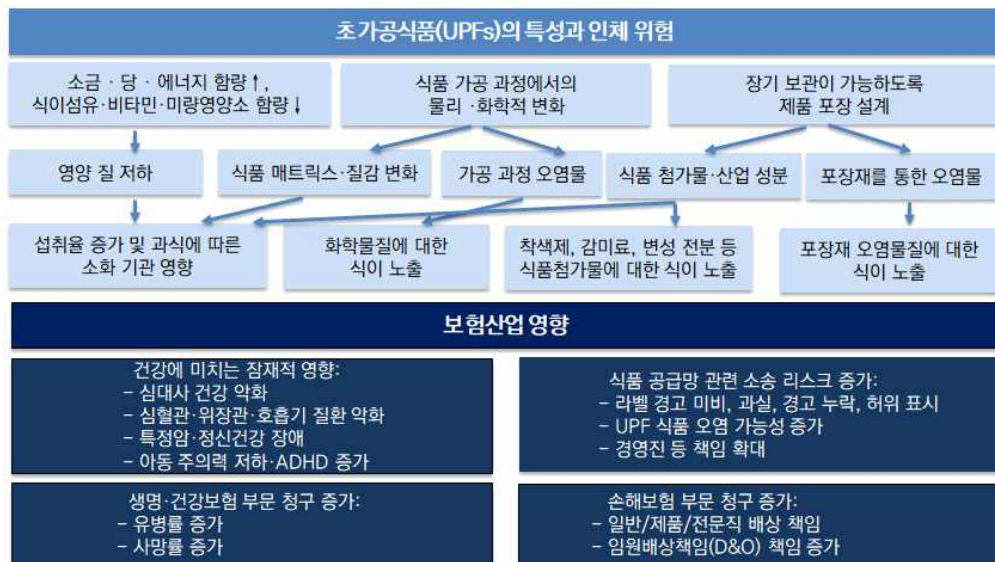
○ 손해보험시장에서는 건강 유해성과 잠재적 중독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으로 제조·유통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
• 기존에는 ‘식품 오염’, ‘금속 이물질 혼입’ 등 물리적 위해에 따른 제품 리콜이 주요 보험금 청구 사유였으나, 최근에는 ‘의도적 중독성 설계’, ‘장기적 건강 악화 가능성 미고지’와 같이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제조·부적절한 판매가 새로운 소송 근거로 부상함

- 2024년 12월, 미국 필라델피아 주에서는 주요 식품 제조업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중독성이 있는 초가공식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<sup>9)</sup>

- 이번 소송은 대규모·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고, 업계 전반에 막대한 방어 비용과 합의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,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책임보험/일반책임보험뿐 아니라, 경영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청구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〈그림 1〉 초가공식품의 특성과 인체 위험 및 보험산업 영향



자료: Swiss Re(2025. 6. 12.), “Ultra-processed Foods-Health and Liability Risks”

○ 향후 초가공식품의 건강 유해성과 관련한 규제 변화와 분쟁 가능성은 손해보험의 제품책임·배상책임 위험과 생명·건강보험의 손해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,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노력이 필요함

7) National Heart, Lung, and Blood Institute(2025. 3. 5.), “Spotlight on UPFs: NIH Explores Link Between Ultra-processed Foods and Heart Disease”

8) News Medical(2025. 7. 13.), “Ultra-processed Foods Threaten Brain Health in Kids and Teens, Review Warns”

9) Food Processing(2025. 1. 22.), “11 Food Companies Targeted in Ultraprocessed Lawsuit”